

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

- 4.29.(목), 무역분석팀 -

<조사 배경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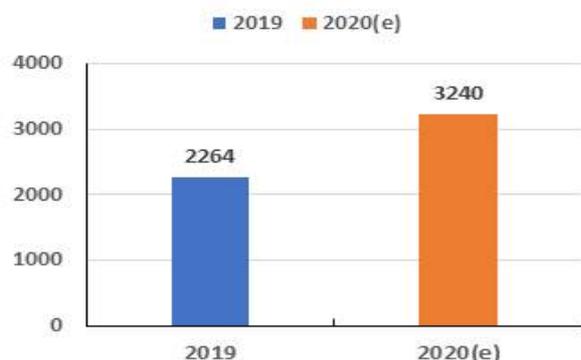
- ▶ 코로나19 이후 유럽,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,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 역시 급성장 중
- ▶ 최근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우리 수출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,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·기업의 경쟁이 치열

1.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동향

□ 전기차 시장 동향

- (판매 동향) 전기차 배터리 전방산업인 글로벌 전기차(BEV+PHEV) 판매량은 '20년 324만 대로 전년 대비 43.4% 증가
 -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별 보조금 정책, 배터리 기술 향상,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구매 여건 개선으로 판매량 증가
 - (국별 시장) '20년 유럽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139만 대를 기록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*
 - EU 회복기금을 통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자동차 주행거리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 규제 등이 시장 성장 지원
- * '20년 권역별 전기차 판매성장률(전년比 %) : 유럽(136.8) > 중국(11.8) > 미국(3.8)

연도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(단위: 천대)>



권역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(단위: 천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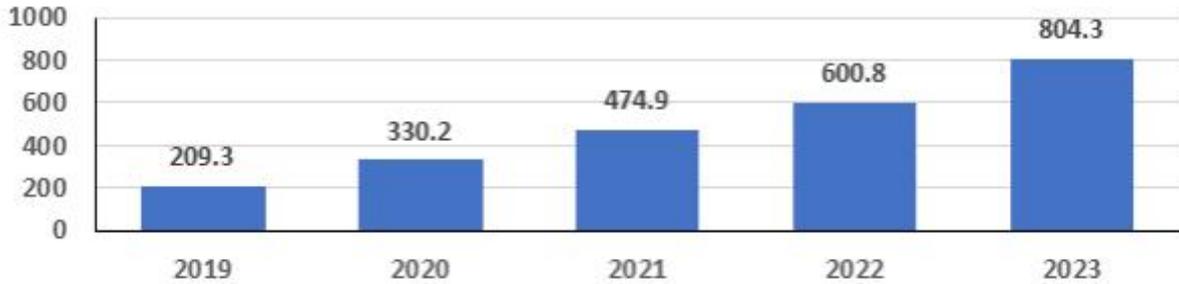


* 자료 : EV Volumes

□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

- (시장 규모) 전기차 판매 증가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'20년 330억 달러를 상회하여 전년 대비 약 57% 증가
 - 중국·유럽·미국 등 주요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'23년 804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

<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(단위 : 억 달러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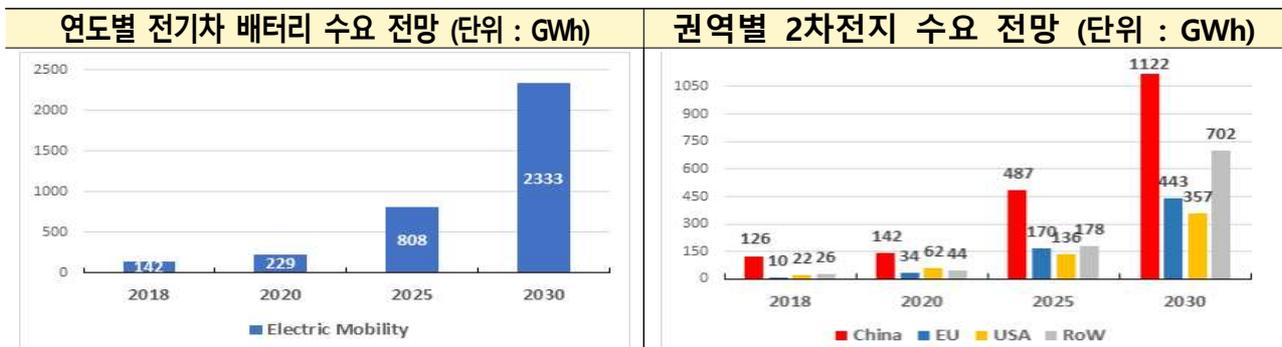


* 자료 : 미래에셋대우

- (생산 능력)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'20년 563GWh 수준으로 '30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한 2,262GWh에 이를 전망
 - 권역별 생산비중은 중국(59%), 유럽(31%), 미국(6%) 順 예상(Bloomberg)



- (수요)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와 전기차 판매 성장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'30년 2,333GWh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



* 자료 : World Economic Forum

2.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주요 이슈

□ 韓·中·日 글로벌 경쟁 심화

-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韓·中·日 3국이 주도, '20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기준 상위 10개사 점유율이 시장 전체의 92.1% 차지*

* '20년 국별 점유율 : 中(4개사, 34.8%) > 韓(3개사, 34.7%) > 日(3개사, 22.6%)

- '20년 기준 中 CATL이 점유율 1위(24.0%)를 유지하고 있으며 LG는 2위(23.5%)로 전년비 13% 상승, 日 파나소닉은 3위(18.5%)로 하락

* 韓 3사 주력제품인 파우치형 배터리가 주요 OEM 전기차에 탑재되면서 '18년 이후 3배 가까이 점유율 상승 ('18년 11.8%→'20년 34.7%)

<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 (단위:GWh, %)>

순위	제조사명(국가)	2018년		2019년		2020년	
		사용량	점유율	사용량	점유율	사용량	점유율
1	CATL(中)	23.4	23.4	32.5	27.6	34.3	24.0
2	LG에너지솔루션	7.5	7.5	12.4	10.5	33.5	23.5
3	파나소닉(日)	21.3	21.3	28.8	24.4	26.5	18.5
4	BYD(中)	11.8	11.8	11.1	9.4	9.6	6.7
5	삼성SDI	3.5	3.5	4.4	3.8	8.2	5.8
6	SK이노베이션	0.8	0.8	2.1	1.7	7.7	5.4
7	CALB(中)	-		1.5	1.3	3.4	2.4
8	AESC(日)	3.7	3.7	3.9	3.3	3.8	2.7
9	Guoxuan(中)	3.2	3.2	3.2	2.7	2.5	1.7
10	PEVE(日)	1.9	1.9	2.2	1.9	2.0	1.4
	기 타	19.9	19.9	15.8	13.4	11.2	7.9
	합 계	100.0	100	118.0	100	142.8	100

* 자료 : SNE 리서치

- 韓·中·日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고 최근 3국 간 주도권 경쟁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음

<韓·中·日 배터리 산업 주요 전략>

국가명	주요 내용
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 주도 R&D 및 투자로 단기간에 대량 생산시설 구축·양질의 기술력 확보 ▶ 미·중 무역분쟁 구도에서 미·중·유럽 등 수요처 다각화에 성공해 시장을 선점 ▶ 부족한 내수를 극복하고 중국 등 후발주자와 차별화를 위해 '기술 초격차' 전략 추진
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부 주도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으로 내수시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▶ R&D 집중투자 지원으로 한국·일본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배터리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향후 기술우위와 가격경쟁력 확보로 시장 점유율 제고 계획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부의 R&D 지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원천 기술을 확보한 First Mover였으나, 미온적 투자로 한국과 중국이 시장을 선점 ▶ 전고체 배터리, 안전기술 강화 등 높은 기술력을 활용해 시장 주도권 확보 추진

□ EU·美의 역내 공급망(RVC) 구축 강화

- 미·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계기로 EU와 미국은 미래 핵심 소재에 대한 기술 패권과 공급 안정성에 초점 맞춘 전략 필요성을 인지
 -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시장을 韓·中·日 3국이 독점했을 때 향후 부품 수급과 시장 우위 확보에 문제를 우려한 움직임으로 분석
- EU·美는 자국산 우대정책과 친환경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공급망 재편을 시도
 - ① (EU : 新배터리 규제* 발표) 생산-재활용 전 주기의 탄소발자국 공개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EU시장 진출 조건으로 규정
 - EU에 유통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CO₂ 배출, RE100 등 환경지표 준수와 배터리 재활용 여부 등 조건 부합해야 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가능

▶ EU 新배터리 규제(안) 발표(20.12) 주요 내용

- ① (24.7월) 전기차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대상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화
- ② (27.7월) 탄소발자국 최대 상한선 제시, 준수 시행
- ③ (30.1월) 2차전지 재활용 원료 의무사용 비율 준수 및 상향 시행(35년)
(2030년 : 코발트 12%, 리튬 4%, 니켈 4% → 2035년 : 코발트 35%, 리튬 10%, 니켈 12%)

- ② (美 : Buy American* 강화) 전기차 배터리를 핵심 인프라로 규정,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시장보호 및 GVC 재편 노력 가시화

▶ 美 Buy American 행정명령(21.1) : 미국 중심의 제조 공급망 재편

- ① 미국산 조달 우대정책을 위한 전 부처의 조달규정·절차 재검토
- ② 백악관 예산관리실 내 Made-in-America국 신설. 컨트롤 타워 구축
- ③ 외산제품 조달 시 전면 감사 실시

- 국내기업들도 美 시장 유망성과 연계 검토해 현지 투자를 추진

* (삼성SDI) 미시간·선벨트 지역 대상 배터리 셀 공장 건설 검토 (25년 잠정)

* (LG에너지솔루션) GM과의 합작법인인 '얼티엄셀즈'의 제2공장 건설 결정

□ 완성차 업체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 확산

- 전기차 배터리 수급 문제와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OEM의 배터리 생산 움직임 본격화
-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'22년부터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'23년 140GWh, 2025년엔 361GWh의 공급부족 예상

<전기차 배터리 수급 전망 (단위: GWh)>



* 자료 : SNE 리서치

-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으로 전기차 산업의 핵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요 OEM에서는 배터리 제조사와의 파트너십·JV 설립을 추진
- OEM에서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거나 기존 배터리 제조사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등 산업 내 경쟁 구도 형성

<OEM·배터리 제조사 업계 동향>

권역	기업명	내용
EU·미	BMW	· 자체 배터리 생산에 2억 유로 투자, 獨 뮌헨에 배터리 R&D센터 설립
	VW	· 노스볼트社와 연 40GWh 규모 각형 배터리공장 6기 건설 추진
	테슬라	· 2030년까지 연 3,000GWh 배터리 생산 추진
중국	BYD	· 배터리-전기차 생산 수직계열화. 배터리 원가절감·기술개발 고도화
	지리차	· JV 페러시스社와 연 42GWh 규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추진
	CATL	· 2025년까지 120억 달러 투자해 연 230GWh 생산시설 증설 추진

3. 韓 전기차 배터리 수출 동향

-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(리튬이온전지 포함) 세계 2위 수출국으로 '16년 이후 연평균 20.3%의 성장률을 기록해 '20년 48억 달러를 돌파

<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출 동향 (단위 : 백만 달러, %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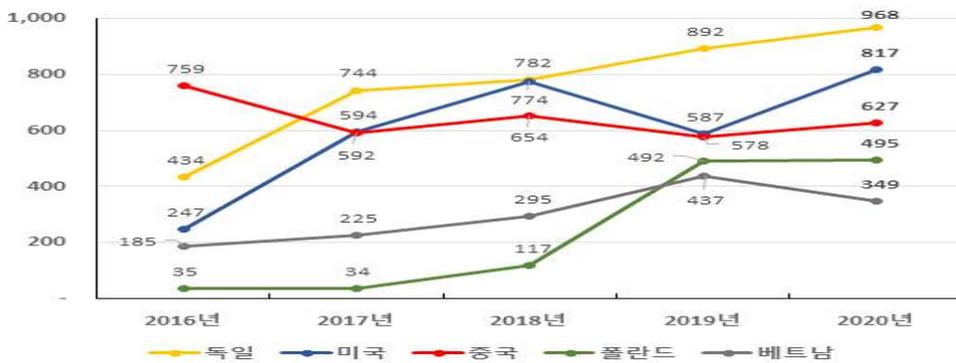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연평균증가율
수출액	2,328	3,518	4,388	4,678	4,879	20.3

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'20년 기준 우리의 수출국 1위는 독일(9.6억 달러)이며, 미국(2위, 8.1억 달러) 수출이 전년 대비 39% 급증하여 수출 증가세가 뚜렷

* (對中) '16년 우리나라 1위 수출국이었으나, 현지 생산 증가로 3위로 하락

<한국의 국가별 전기차 배터리 수출 동향 (단위 : 백만 달러)>



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우리의 對미국, 對유럽 수출은 '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3.3%, 20.7%를 기록, 주력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
- 우리와 경쟁 중인 중국과 일본의 對미국, 對유럽 수출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어 3국 간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

<韓·中·日の 對미국, 對유럽 수출 추이 (단위 : 백만 달러, %)>

국가명	對수출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연평균증가율
한국	美	219	580	768	732	923	43.3
	EU	895	1,363	1,668	1,872	1,897	20.7
중국	美	945	1,037	1,473	1,835	2,056	21.5
	EU	1,076	1,356	2,173	3,458	4,746	44.9
일본	美	501	527	517	452	627	5.8
	EU	540	711	627	468	543	0.1

* 자료 : Global Trade Atlas

4. 시사점

-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中·EU·美 중심으로 확대되고 韓·中·日 3국 기업 외 EU·美 기업이 가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
- 이에 전고체 배터리, 분리막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선점을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 중장기 시장 주도권 확보 전략 필요
 -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 '35년 약 29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^(KB증권)되나 상용화 연구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
 - *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 : 日(54.3%) > 美(18.3%) > EU(12.3%) > 韓(12.2%) 순
 -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까지 기술적 난제와 가격경쟁력, 안정성 등 기술 연구가 선행돼야 하기에 정부 R&D 지원 노력이 절실
- 전기차 산업전환과 판매 성장으로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부상한 유럽과 미국 시장 확대 노력 및 OEM 맞춤형 배터리 개발 노력 필요
 - 중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정책이 '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전기차 판매 감소를 대비해 타 지역 수요 선점 중요
 - 유럽·美 시장은 현지 진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와 친환경 기술 및 완성차 업계 수요를 반영한 新제품 개발 노력 필요
 - * (LG에너지솔루션) 해외공장설비 재생에너지로 운영, 협력사 탄소배출 모니터링 등
- LG-SK 배터리 합의(21.4)를 계기로 불확실성 감소한 우리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절실
 - 리튬, 니켈 등 수입 의존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 광물자원의 수입 대체 노력 필요
 - 배터리 규격 표준화와 전고체·리튬황 등 배터리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경쟁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
 - BaaS(Battery as a Service) 등 파생 신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

구분	내용	주요 제조사	사진
각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성 중시하는 유럽에서 선호도가 높으며, 중국 배터리 업계의 주력 생산모델 · (장점) 충격과 발열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고, 대량생산 공정단계가 적어 원가절감 가능 · (단점) 저출력, 저밀도, 디자인 유연성이 낮음. 열 방출이 어려워 특수냉각 처리 필요 ▶ (주요 OEM) 폴크스바겐, 포르쉐 아우디, 페라리, BMW, 토요타 	<p>삼성SDI 도시바 CATL BYD 스노볼트</p>	
파우치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 배터리 업계의 주력 생산모델로 알루미늄 포일에 배터리를 싸는 형태의 배터리 · (장점) 작은 부피로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디자인 가능, 두께가 얇고 가벼워 에너지밀도가 높음 · (단점) 높은 생산비용과 외부 물리적 충격에 약함 ▶ (주요 OEM) 현대 기아, GM, 포드, 르노, 볼보, 닛산 	<p>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</p>	
원통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美 테슬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로, 전기자전거, ESS 등 적용분야가 많아 시장확대 예상 · (장점) 공정난이도 낮고 규격화되어 안정성 높음. 제작비용이 낮고 대량생산에 용이 · (단점) 다양한 디자인 형태로 제작이 불가하고 잦은 충방전 시 성능 저하, 짧은 수명 문제 ▶ (주요 OEM)테슬라, JAC, XPEV 	<p>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</p>	